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자는 글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기도 하지만 생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독해 과정에서 독자는 글에 제시된 정보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주제, 필자의 의도까지도 추론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읽는 과정을 추론적 읽기라고 한다.

[A] 먼저, 독해 과정에서 독자는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글에 사용된 단어나 문장, 담화 표지 등에서 단서를 찾거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글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이때는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적 읽기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읽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독자가 글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과정에서 ㉠ 독자는 글에서 생략된 내용이나 필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글에 제시된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서로 비교해 가며 추론적 읽기를 하게 된다. 실제 독해 과정에서 독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며 추론적 읽기를 한다.

추론적 읽기 과정에는 글의 응집성,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과 같은 요소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먼저, 문장들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글은 독자가 문장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읽어야 하므로, 문장 간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글을 읽을 때보다 독해 과정에서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하다. 또한 독자의 읽기 능력에 비해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정보들이 오히려 독자의 추론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다른 부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많은 정보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선택한 정보의 중요성을 점검해 가며 정확한 추론을 할 필요가 있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글의 내용은 필자가 기술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② 독자는 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글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제시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 글은 독자의 추론에 부담을 줄 수 있다.
④ 추론적 읽기 과정에서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은 글의 응집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⑤ 독자는 글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거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할 수 있다.

2. 다음은 학생이 독서 후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A]를 바탕으로 ⓐ~ⓔ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중세 유럽의 역사』라는 책을 골라 ⓐ 글에 드러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읽었다. 중세에는 교황의 권위가 높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 중세가 신 중심의 사회였다는 문장을 통해 그 이유를 쉽게 추론할 수 있었다. 중세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지 못했다는 부분은 ⓒ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놀라웠다. ⓓ 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세 시대의 의료 수준을 다루었던 신문 기사의 내용을 떠올려 보니 지금보다 당시의 위생 조건과 의료 수준이 나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 중세에도 어느 정도의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는 ⓔ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부를 축적한 상인 계층의 등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① ⓐ :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할 때 필요한 과정이다.
② ⓑ :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적 읽기를 한 결과이다.
③ ⓒ : 글에 제시된 정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비교하는 과정이다.
④ ⓓ : 자신의 확장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한 결과이다.
⑤ ⓔ : 자신의 배경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추론적 읽기를 한 결과이다.

3. <보기>를 읽고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추론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독자의 배경지식이 잘못된 지식이라면, 이 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추론을 하기가 어렵다.

① 독자는 글이 쓰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론해야겠군.
②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점검하는 자세를 지녀야겠군.
③ 독자는 배경지식 수준에 따라 추론의 목적을 달리해야겠군.
④ 독자는 글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활용할 때 필자의 의도를 고려해야겠군.
⑤ 독자는 단어나 문장 등에서 단서를 찾아 문장 간의 관계를 재구성해야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자는 도(道)란 개체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원리로, 개체들 이전에 도(道)가 미리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장자는 『제물론』에서 도(道)는 개체들의 활동을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도(道) 역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체들 사이의 관계의 흔적, 혹은 소통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도(道)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입장을 ⓐ 지녔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통해 대상을 구분할 때, 대상을 구분하는 이름은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속성에 따라 명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대상과 이름 사이의 관계는 특정 공동체의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 의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그 결과 대상들이 마치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 여겨졌을 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자는 ㉠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한 이름은 본질적으로 그 대상의 속성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도(道)가 사후에 생성된다는 장자의 주장처럼, 왕충은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의미 역시 사후에 결정되며 '하늘의 뜻'과 같이 자연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미리 정해져 있기에 인간은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왕충은 『논형』을 통해 자연재해가 인간을 비롯한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재해는 하늘의 뜻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하늘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왕충은 하늘의 작용이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사람의 삶도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벼슬하느냐 못 하느냐는 한 사람의 재능에 ⓒ 달린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만나는 시대에 따라 출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재능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하면 등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

플라톤은 사물보다 사물의 의미가 미리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물에는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부여한 '필연적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계 역시 제작자가 필연적 의미에 따라 형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루크테리우스는 세계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던 원자들이 우연히 마주쳐 응고되면서 생성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크테리우스는 세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원자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서로 평행하게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때 수직 낙하하던 원자들 중 하나의 원자가 평행 상태가 깨져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은 미세한 편차로 기울게 되면 결국 옆의 원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이 마주침으로 인해 수많은 원자들이 연속해서 마주치게 되면서 원자들이 응고되고 그 결과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한 원자에서 발생한 미세한 편차를 '클리나멘'이라고 명명했는데, 원자들이 마주치거나 응고하는 방식은 미리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제작자가 필연적 의미에 따라 세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서양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루크테리우스의 생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편 기계 발명 및 기술 혁신을 계기로 발생한 산업 혁명 이후 크게 발달한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심각한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에 일부 철학자들은 경제적인 것이 인간 사회의 구조 및 역사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라고 주장하며,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은 이미 정해진 역사 발전의 수순을 따르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자본주의는 곧 인류 역사에서 ⓓ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알튀세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와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한 가지 원리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루크테리우스의 철학에 영감을 받아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의 흐름은 정해진 역사 발전의 수순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18세기의 이탈리아가 자본과 기술, 노동력처럼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 갖추었음에도 자본주의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많은 요소들이 우연히 마주치고 응고되어야 자본주의가 발생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만약 이 세계가 선재된 하나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간은 이미 방향이 제시된 역사의 흐름을 따르는 존재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계 형성의 우연성을 주장한 루크테리우스와 알튀세르의 주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새로운 마주침'을 시도함으로써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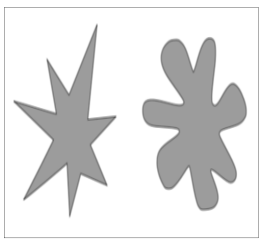
① (가)는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에 대한 사상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가 지닌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② (나)는 사물의 의미에 대한 대립적 견해를 제시한 후 그 견해들을 절충한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도를 바라보는 사상가들의 논쟁을 소개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세계 형성의 근원을 밝힌 사상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우연성을 중시하는 사상가의 입장과 그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를 소개하고 있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왕충은 자연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삶이 분리되었다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였다.
② 서양 철학에서는 제작자나 필연적 의미를 통해 세계의 형성을 설명하려는 사상이 존재하였다.
③ 장자는 '도'의 생성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길이 생기는 것에 비유하며 '도'와 개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④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사라질 것이라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역사의 발전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⑤ 알튀세르의 사상은 인간이 정해진 역사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 주었다.

6. ㉠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내용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뇌과학자인 라마찬드란과 후바드는 사람들에게 왼쪽 그림의 두 도형을 보여 주며, 각각 '부바'와 '키키'라는 소리와 도형을 짝짓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 실험 결과 95%의 실험 참가자들이 곡선 형태의 그림을 '부바', 삐죽삐죽한 형태의 그림을 '키키'라고 선택하였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부바'와 '키키'라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모국어를 사용하며, '부바', '키키'라는 명칭이 자신의 모국어에 없는 경우에 ㉯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유사한 실험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달리 실험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부바'와 '키키'라는 소리를 만들 수 없으면 ㉰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① ㉮는 대상에 부여된 이름이 그 대상과 필연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한다.
② ㉯는 대상들을 구분하는 언어가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한다.
③ ㉰는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 의해 대상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 ㉮와 ㉯는 대상의 속성이 대상을 지칭하는 소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⑤ ㉯와 ㉰는 실험 참가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대상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7.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플라톤'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계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자가 낙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② 세계가 형성되기 전에도 원자들이 존재하려면 원자들의 존재 의미보다 원자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③ 원자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없다면 평행하게 떨어지던 원자에서 클리나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원자들이 마주치거나 응고하는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의 산물에 불과할 뿐이다.
⑤ 클리나멘에 의해 발생한 최초의 마주침이 다른 마주침으로 이어지려면 수많은 원자들이 이 세계에 존재해야 한다.

8. <보기>는 동서양 철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사물은 필연적으로 원인이 되는 어떤 것에 의해 생성된다. 어떤 경우에도 사물은 원인이 없이는 생성될 수 없으며, 이는 변하지 않는 사물의 생성 원리이다.
ㄴ. 사람들이 발로 개미를 밟고 지나가서 죽일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은 개미는 다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단지 사람의 발과 개미가 우연히 마주쳤는지, 혹은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는지에 의해 나타날 뿐이다.
ㄷ. 왕이 바르지 않은 정치를 행하려고 하면 하늘이 이상 현상을 일으켜 경고하여 다가올 위험을 알려준다. 경고를 했는데도 고칠 줄을 모르면 사변을 일으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할 줄 모르면 재앙이 일어난다.

① ㄱ에 제시된 사물의 생성 원리에 대한 인식은 알튀세르가 제시한 인류 역사의 흐름에 대한 시각과 상충되겠군.
② ㄱ에 제시된 원인에 관한 시각은 노자가 제시한 '도'가 개체들보다 선재한다는 생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③ ㄴ에 제시된 결과의 차이에 대한 견해는 왕충이 주장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④ ㄴ에 제시된 사건의 발생에 대한 서술은 루크테리우스가 제시한 세계의 형성 과정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군.
⑤ ㄷ에 제시된 사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시각은 알튀세르가 제시한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군.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견지(堅持)했다
② ⓑ : 간주(看做)되었을
③ ⓒ : 좌우(左右)되는
④ ⓓ : 소멸(消滅)될
⑤ ⓔ : 구성(構成)했음에도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가능한 한 많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추상적인 규범 명제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의 해석 방법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 기관에 의한 유권 해석과 학자들의 학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리 해석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학리 해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문리적 해석 방법, 역사적 해석 방법, 목적론적 해석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우선 법조문의 해석은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의미와 문장의 구조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 문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한다. 어떠한 법조문이든 1차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 또는 법률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법의 의미는 그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확정되어야 하므로, 법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의미는 제정 당시의 의미가 아닌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역사적 해석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 가지고 있었던 입법 의사를 확인하고 탐구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입법자의 입법 의사는 법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거나,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힌 법안이유서, 관련 기관의 입법의견서, 회의록 등의 입법 기초 자료를 ⓑ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제정 당시의 상황과 적용되는 시점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입법자의 입법 의사는 결정적인 해석 수단이라기보다는 구속력이 없는 보조 해석 자료에 머물 수밖에 없다.

㉢ 목적론적 해석 방법은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성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석 주체가 법문의 의미와 입법의 목적, 입법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이념과 가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의미를 찾는 해석 방법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 방법에 의할 때 법해석이란 단지 과거의 입법자가 이미 고려했던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입법의 취지를 새롭게 밝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의 참된 의미는 과거의 입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입법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문언도 단순 의미 해석을 넘어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입법 정신에 따라 법률의 문언을 보충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의 문언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는 법해석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하지만 법문을 구성하는 법 개념 및 범주 속에 규율의 대상인 다양하고도 발생 가능한 모든 현상과 행위들을 완벽하게 포함시킬 수는 없다. 또한 법 제정 시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예측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로 인해 법의 적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법의 흠결이라 한다. 해당 사안을 규율할 법규정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적 흠결', 해당 사안을 규율할 법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은폐된 흠결'이라 부른다. 법관은 이러한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유추가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추는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이 아닌 다른 개별적인 규칙을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추 적용한 법적 판단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과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규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리고 두 사안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유추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타당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유추가 일반적으로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법의 명시적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추의 결과는 목적론적 해석 방법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평가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법의 흠결은 많은 경우에 은폐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관은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법관이 '정의', '이성', '형평' 등 법원리적 규범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여 그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원리들은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어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법관이 감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입법 정책 차원에서 법의 흠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 기관은 법을 해석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법원리적 규범을 활용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
③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의 적용이 법의 해석에 선행한다.
④ 적용할 법규정이 없다면 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문리적 해석에서 문자는 법 제정 당시의 의미로 해석된다.

11. ㉠~㉢의 예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지만, 법률상 '사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재단 법인이나 사단 법인 같은 '법인'도 포함하여 해석한다.
② ㉡ : 국회 누리집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취지를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의사를 탐구하여 해석한다.
③ ㉡ : 법률 용어로 '선의(善意)'라는 말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해석하고, '악의(惡意)'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④ ㉢ :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규정에 따라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개인 정보도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
⑤ ㉢ : 실험실 공장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교원이나 연구원 등 개인의 창의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함.
○ **사안의 배경** : 19세기 말 A국과 B국의 형법은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財物)을 타인의 돈이나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당시에는 전기를 재물로 볼 만한 법규정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았음.
○ **사안에 대한 판단**
- A국 : 절도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무죄를 선고함. 이 무죄 판결을 계기로 A국의 입법자는 전기 절도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함.
- B국 : 전기가 재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절도죄로 처벌함. 이 과정에서 법적 판단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타당성 또한 인정받음.

① A국의 법원은 법의 명시적 흠결을 이유로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지 못했군.
② B국의 법원은 전기 절도 사건에 절도죄에 대한 법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보충했군.
③ B국의 법원은 전기 절도 사건에 적용할 법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겠군.
④ A국은 B국과 달리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 전기 절도 같은 행위를 예측하여 법으로 규정할 수 없었겠군.
⑤ B국은 A국의 특별법 제정처럼 전기 절도와 관련된 법의 흠결을 최소화하는 입법 정책이 필요하겠군.

13.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 : 빈 깡통을 가지고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② ⓐ : 그는 사업체를 여럿 가진 사업가다.
ⓑ : 두 나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③ ⓐ : 그들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
ⓑ :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④ ⓐ : 동생이 축구공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
ⓑ :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⑤ ⓐ : 내 집을 가지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 : 요즘은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중 호우나 우박, 폭설 등과 같은 기상 현상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수량을 예측하여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중 편파 레이더 관측을 통해 10분마다 강수 정보가 갱신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중 편파 레이더는 어떻게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기상 관측 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면 수신된 전파를 분석한 후 여러 변수를 산출하여 강수 입자를 분석한다. 이중 편파 레이더 역시 이 원리를 활용하는데, 먼저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한 값인 반사도를 통해 강수 입자의 대략적인 크기와 개수를 파악한다. 이중 편파 레이더가 송수신하는 전파는 지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수평 편파와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수직 편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편파의 반사도를 수평 반사도, 수직 반사도라고 하며 단위로는 데시벨Z(dBZ)를 사용한다. 이중 편파 레이더의 산출 변수로 사용되는 ⓐ반사도는 수평 반사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피 $1m^3$당 존재하는 강수 입자의 크기와 개수에 비례하여 커진다. 일반적으로 강수 입자가 작고 그 수가 적은 이슬비는 1dBZ 이하의 값을, 강수 입자가 크고 그 수가 많은 집중 호우는 20dBZ 이상의 값을 갖는다. 그런데 우박의 경우 집중 호우와 강수 입자의 크기 및 개수가 달라도 반사도가 집중 호우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사도만으로는 강수 입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출 변수가 필요하다.

우선 강수 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알기 위해서 ⓑ차등반사도를 활용할 수 있다. 차등반사도란 수평 반사도에서 수직 반사도를 뺀 값으로,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을 가지며 단위로는 데시벨(dB)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강수 입자가 큰 집중 호우의 경우, 빗방울이 낙하할 때 받는 공기 저항 때문에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퍼지게 되어 차등반사도가 2dB 이상으로 나타난다. 반면 우박이나 눈이 녹지 않아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입자의 크기가 커도 수평으로 퍼지지 않으며, 회전 운동을 하면서 낙하하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는 거의 구형으로 인식되어 차등반사도 값이 0dB인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하면 집중 호우와 우박의 반사도 값이 비슷해도 기상 현상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강수 입자가 0.3mm보다 작은 이슬비도 공기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아 강수 입자가 구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차등반사도가 주로 0dB로 나타난다. 따라서 ㉠강수 입자의 종류를 구별하려면 반사도와 차등반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비나 우박과 같은 강수 입자의 종류와 강수 입자의 크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단위 부피당 강수 입자 개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차등위상차와 비차등위상차라는 산출 변수를 통해 강수 입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레이더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히면 강수 입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의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두 편파의 위상도 달라지는데, 이 위상의 차이를 누적한 값이 바로 ⓒ차등위상차이다. 단위로는 도(°)를 사용하며, 수평 편파 위상에서 수직 편파 위상을 빼는 방식으로 위상차를 구한다. 전파가 통과하는 강수 입자의 단면 지름이 길어질수록 위상값이 커지기 때문에 차등반사도와 마찬가지로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가지고,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차등위상차는 전파의 진행 방향을 따라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이 산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정 관측 범위에서 차등위상차의 변화율을 나타낸 값을 ⓓ비차등위상차라고 한다. 만약 레이더로부터 5km 떨어진 지점의 차등위상차가 0°이고 10km 떨어진 지점의 차등위상차가 10°라면, 이때 5~10km 구간의 비차등위상차는 차등위상차 변화량 10°를 전파의 왕복 거리 10km로 나눈 1°/km가 된다. 비차등위상차는 차등위상차와는 달리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관측하고자 하는 특정 구간의 강수 입자 개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눈이 녹아 눈과 비가 함께 내리는 경우처럼 두 종류

이상의 강수 입자들이 혼재되어 있으면 산출 변수 값이 실제 기상 현상보다 크거나 작게 나타나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출 변수가 교차상관계수이다. 교차상관계수는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 신호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강수 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유사할수록 1에 가까운 값으로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때 관측 범위 내에 종류가 같고 크기가 비슷한 강수 입자들이 분포하면 교차상관계수가 0.9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강수 입자가 혼재된 경우나, 집중 호우처럼 강수 입자의 종류가 같더라도 그 크기가 다양한 경우에는 교차상관계수가 0.97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상 관측 레이더는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군.
② 이중 편파 레이더가 송신하는 전파의 강도는 관측 범위 내에 존재하는 강수 입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군.
③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강수 입자는 낙하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퍼지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구형으로 인식하겠군.
④ 이중 편파 레이더는 모든 산출 변수를 구할 때 수직 편파를 이용하므로 보다 정확한 기상 관측이 가능한 것이겠군.
⑤ 관측 범위 내에 두 종류 이상의 강수 입자가 혼재할 경우 교차상관계수만으로는 강수 입자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겠군.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슬비와 우박은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② 집중 호우와 우박은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③ 이슬비와 집중 호우는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④ 이슬비와 집중 호우는 차등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⑤ 집중 호우와 녹지 않은 눈은 차등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1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서로 다른 기상 관측 자료에서 ⓐ의 값이 달라도 ⓑ의 값은 동일할 수 있다.
② 강수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는 ⓐ와 ⓒ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산출 변수이다.
③ 관측 범위 내 강수 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가 양의 값을 갖는다면 ⓒ도 양의 값을 갖는다.
④ 레이더로부터 3km, 6km 떨어진 지점에서 ⓒ의 값이 각각 0°, 12°라면 3~6km 구간에서 ⓓ의 값은 2°/km이다.
⑤ ⓓ는 ⓒ와 달리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된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기상 관측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 기상 관측 자료

다음은 비가 내리고 있는 A 지역과 기상 현상을 알지 못하는 B 지역을 이중 편파 레이더로 관측한 결과이다.

관측 지역	반사도	차등반사도	교차상관계수
A	45dBZ	2.5dB	0.95
B	45dBZ	0dB	0.98

(단, 강수 입자 특성 외의 다른 관측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① A 지역은 차등반사도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강수 입자의 모양이 수평으로 긴 형태일 것이다.
② A 지역은 차등반사도가 2dB보다 크고 교차상관계수가 0.97보다 작으므로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③ B 지역의 기상 현상을 우박으로 판단했다면 반사도가 20dBZ 이상이면서 차등반사도가 0dB이기 때문일 것이다.
④ B 지역은 교차상관계수가 0.97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종류가 같고 크기가 비슷한 강수 입자들이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⑤ B 지역은 차등반사도가 A 지역보다 작고 반사도가 A 지역과 동일하므로 B 지역의 수직 반사도는 A 지역보다 작을 것이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는 ㉠<u>정묘년 정월 십오 일</u>이라. 온 조정의 신하들이 다 하례할 때에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전(年前)에 짐이 조웅을 보니 인재가 거룩하고 충효가 거룩하매 본보기가 될 만하니 태자를 위하여 데려다가 짐의 곁에 두고 서동(書童)을 삼아 국사를 익히게 하고자 하나니 경들의 소견은 어떠한가?"

여러 신하가 다 묵묵하되 이두병이 아뢰기를,

"나라의 법이 각별히 엄하오니 벼슬 없는 여염집 아이를 이유 없이 조정에 둠은 잘못된 줄로 아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충효의 인재를 취함이라.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취하려 하겠는가."

두병이 다시 아뢰기를,

"인재를 보려 하시면 장안을 두고 이르더라도 조웅보다 열 배나 더한 충효의 인재가 백여 인이요, 조웅 같은 이는 수레에 싣고 말[斗]로 그 양을 헤아릴 정도로 많습니다."

황제께서 윤허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회답이 없는지라. 승상이 시종대(侍從臺)에 나와 관원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후에 만일 **조웅을 위하여 천거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받으리라**."

하니, 백관이 누군들 겁내지 아니하리오.

이즈음에 왕 부인과 조웅이 이 말을 듣고 부인은 못내 두려워하고 웅은 분기등등하더라.

천운이 불행하여 황제께서 우연히 건강이 편하지 않으시더니 ㉡<u>열흘</u>이 지나도 조금도 차도가 없고 점점 병이 깊어지니,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늘에 빌어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소인배들의 조정이라 회복을 어찌 기대하리오.

㉣ 정묘년 삼월 삼 일에 황제께서 붕어(崩御)하시니 태자의 애통하심과 만인의 곡성이 천지에 사무치고 왕 부인 모자는 더욱 망극하더라. 어느 사이에 국법과 권세가 이두병의 말대로 돌아가니, 백성이 망국의 행동을 일삼고 산중으로 피란하더라.

이때에 관원들이 엄히 예의를 갖추어 ㉤ 사월 사 일에 황제를 서릉(西陵)에 안장하였다.

하루는 관원들이 노소 없이 시종대에 모여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역모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니 조정 백관 중에 그 말을 좇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지라. ㉥ 시월 십삼 일은 황제의 생일이라. 모든 관원이 종일토록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물어 말하기를,

"이제 태자의 나이는 팔 세라. 국사는 매우 중요한데, 팔 세 태자의 즉위는 일이 매우 위태한지라. 법령이 점점 쇠하고 나라가 위태할 지경이면 그대들은 어찌하려 하느뇨?"

여러 신하가 일시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A] "천하는 누구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며, 조정은 십대(十代)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 어찌 팔 세 태자에게 제위를 전하리오. 또한 황제 붕어하실 때 승상과 협정하라 하신 유언이 있었지만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하늘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또 다른 왕을 두리이까?"

여러 신하의 말이 모두 한 입에서 나온 듯하더라.

"이제 국사를 폐한 지가 여러 날이라. 엎드려 빌건대 승상은 전일의 과업을 전수하여 옥새를 받으시고 제위를 이으셔서, 조정과 민간의 모든 사람이 실망하며 탄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대소 관원이 일시에 당 아래 땅에 엎드려 사배하니 그 위엄이 서릿발 같은지라.

[중략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를 떠난 후 여러 도사를 만나 무예를 닦고 힘을 기른다. 이후, 조웅은 의병 대원수가 되어 이두병의 군사를 무찌르고, 이두병에게 항복하라는 격서를 보낸 뒤 그를 찾아간다.

이때에 황성 백성들이 조 원수가 온단 말을 듣고 즐겨하여 마중 나오니 그 수를 가히 세지 못할지라. 또 이두병을 잡아 온다는 말을 듣고 장안의 백성들이 노소 없이 다 즐겨 말하기를,

"극악한 이두병이 형세만 믿고 자칭 천자라 하여 천지가 무궁하기를 바라더니 일시를 보존하지 못하고 어이 그리 단명하는고? 하늘이 통찰하여 네 죄를 아시고, 무지한 백성들도 네 육신을 원하거니 착하고 빛나도다. 일월 같은 조 원수를 보니 도탄 중에 든 백성들이 단비를 만나도다. 사방으로 흩어진 충신들도 소식을 알았던가. 백발 노소 장안 백성들아, 구경 가자스라!"

하고 무수한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하더라.

원수가 팔십만 대병을 몰아 황성을 짓쳐 들어오니 황성 백성들이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며 말하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어디를 가셨다가 이제야 오십니까? 천우신조로 대송이 회복되도다."

하고 무수히 하례하거늘 원수가 위로하기를,

"살아서 너희를 다시 보니 반갑기 헤아릴 수 없도다."

하시며 행군을 재촉하여 수일 만에 황자강에 이르니 강산 풍경이 예와 같은지라. 문득 옛일을 생각하니 슬픈 생각을 금하지 못하고 사공을 재촉하여 강을 건넜더니 황성관 어귀에 조정 백관이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원수의 군행을 기다리다가 원수가 오심을 보고 나아 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B] "소인 등은 임금을 속였음이라. 죽어 마땅하나 그때를 당하여서 도망치지 못하였고 또 두병의 형세를 당하지 못하여 참여했으나 매일 송 태자를 생각하오니 가슴 속이 막혀 한순간인들 온전하리오. 천행으로 원수가 이리 오신다 하옴에 범죄 불고하고 두병의 부자를 결박하여 바치니 엎드려 바라건대 원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널리 용서해 주소서. 소인들의 잔명을 보전하여 주옵심을 바라나이다."

하며 애걸하거늘 원수가 이두병을 보니 분기충천한지라. 진을 머무르게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두병을 붙잡아 오라 하시니, 군사가 일시에 달려들어 두병을 포승으로 묶어 진중에 꿇리니 원수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두병아, 네 낯을 들어 나를 보라. 네 죄를 생각하니 죽여도 아깝지 않음이라.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리니 그 죄가 어떠하며, 또 나를 잡으려고 장졸을 보내어 시절을 요란케 하니 무슨 일이뇨? 사실대로 똑바로 아뢰어라."

하시니 좌우의 무사가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며 바삐 아뢰라 하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는지라.

이두병이 겨우 진정하여 아뢰되,

"나의 조정의 신하들은 성품이 비길 바 없이 음험하고 흉악한 신하들이라. 죄를 알고 나의 부자를 잡아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리오. 원수의 처분대로 하라."

하니 원수가 더욱 크게 성내어 무사를 호령하여 문초하라 하니 무사들이 일시에 소리하고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니 두병이 견디지 못하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趙雄傳)」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왕 부인은 황제가 죽은 후 태자를 산중으로 피신시켰다.
② 관원들은 엄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황제의 장례를 치렀다.
③ 황제는 조웅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를 등용하고자 했다.
④ 조웅은 이두병의 죄목을 나열하며 그의 잘못을 심문했다.
⑤ 이두병은 어린 태자의 즉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1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 사건으로 인해 ㉡ 동안 황제의 신상에 변화가 생긴다.
② ㉠과 ㉢ 사이에 대립하던 신하들이 ㉤의 사건을 통해 화합하게 된다.
③ ㉠에 황제가 결정을 보류했던 일이 ㉥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④ ㉡ 동안 드러난 백성들의 소망이 ㉢의 사건으로 실현된다.
⑤ ㉢의 황제의 죽음 이후, 제위에 대한 논의가 ㉥에 마무리된다.

2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상대에 대한 원망을, [B]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물음의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A]는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B]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③ [A]는 현재의 상황을 명분으로 들어, [B]는 과거의 상황을 해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④ [A]와 [B]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상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⑤ [A]와 [B]는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악인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고 반란을 도모해 권력을 쟁취한다. 악인에게 원한을 갖게 된 주인공은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하게 되고 결국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복수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악인의 권력에 움츠려 있던 백성들 또한 주인공을 지지하며 악인에게 맞서게 되고, 주인공의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는 집단의 고통을 해결하고 대의명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

① '조웅을 위하여 천거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이두병은 조웅의 천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는 악인으로 볼 수 있겠군.
② '역모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는 이두병의 모습은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는 모습은 이두병의 통치에 고통을 받던 백성들이 조웅의 등장을 반긴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조웅을 기다리는 신하들의 행동은 주인공을 대신해 원한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조웅이 '태자를 귀양살이 보'낸 이두병을 심문하는 행위는 왕권을 찬탈한 이두병을 심판한다는 점에서 대의명분을 실현하여 복수의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수길이가 먼저 용모에게 알은체를 했다.

"워디 가나?"

"심심해서 예까지 나와봤구먼."

용모가 다가가며 대꾸하자 조순만이도 얼굴을 걷으며,

"장보러 나가남?"

하고 물었다.

"아침버텀 장에 가봤자 별 볼일 있간디. 나이타에 지름이나 늫까 허구……"

[A] 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고개를 꾸뻑 하여 여겨보니 느름새 위뜸 고학성이 아들 성문이었다. 아이는 겨드랑이에 장끼를 물리고 있었다.

"웬 게냐. 니라 잡었데?"

용모가 물었다.

"으만무지루 칡넝쿨 올무를 해 놨더니 오늘 아침에 가봉께 모가지가 옭혀 죽었더라너먼그려."

오가 아이 대신 그렇다고 일러주었다.

"잡었으면 앓구 있는 아버지나 볶어 디리지 워디 가지구 가는 겨?"

용모가 나무라는 투로 한 말에 오는,

"학셍이가 여적지 못 일어났나 뵈. 워디가 워째서 못 일어난다나? 누운 지두 달포 가차이나 될 텐디."

하며 염려하였고 조는,

"원체 옳는 살림에 약을 먹을라니 되게 째는가 벼. 담뱃값허게 팔어 오라더랴."

장끼를 어루만져가며 성문이 말로 대꾸했다.

"좀 들헌지 그저 그 타령인지, 나두 자주 못 들여다봐서…… 늬 아빠가 팔어 오라더란 말여?"

용모가 성문이더러 물으니 녀석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나가나?"

조가 묻고,

"누가 팔어 봤으야지."

오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삼천 원 아래루는 안 팔 거유."

성문이가 어린 것답지 않게 흰소리를 했다.

"글쎄 말여, 드믄 것이긴 해두 그 돈 주구 먹을 사람이 있으까……"

용모는 막연하게 중얼거리고 나서 가던 길을 다시 이었는데, 성문이가 졸래졸래 뒤따라오고 있었다.

[B] 용모가 성문이 손에서 꿩을 넘겨 받아 든 것은 읍내 초입에 들어서기 직전이었다. 그것은 물건을 흥정하기에는 애가 너무 어리고, 뿐만 아니라 곁에서 말마디나 거들어 다다한 푼이라도 더 받아 쥐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용모는 꿩 날갯죽지를 쥐고 앞뒤로 내둘거리며 장꾼들 틈으로 들어갔다. 보자는 사람만 나서면 아무라도 붙들고 흥정하여 웬만하면 얼른 넘겨주고 아이를 일찍 들여보낼 셈이었다. 그는 하던 대로 먼저 어리전에 들렀다. 그날도 돼지 새끼 염소 닭 오리부터 억지로 젖 뗀 강아지, 생쥐만 한 고양이 새끼까지 고루 나왔는데, 용모가 그곳을 먼저 찾아간 것은 꿩 임자가 있으리라고 여겨서가 아니라 장에 나오면 으레 거기서부터 둘러보았던 습관으로서였다.

[중략 줄거리] 장터에서 '용모'는 꿩을 잡았다는 오해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용모를 폭행하고, 자신의 추측대로 진술서를 작성한다. 결국 용모는 수렵 금지 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차례가 용모였다. 용모는 대답을 하고 일어서면서,

"암만 생각해 봐두 말여, 고연히 덧낼 게 아니라 내가 헌 짓이라구 뒤집어쓰는 수밖에 옳겄다."

내게 귓속말을 하고 나갔다. 그가 움직이자 새삼 점심에 마신 술 냄새가 물씬했다. 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더니,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짓 했어요?"

[C] 판사는 앞서보다 훨씬 부드러운 어조였으나 그만큼 위엄이 서리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용모는 거듭 읍한 뒤에도 잔뜩 지르숙어 가지고 입을 못 열고 있었다.

"꿩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거듭 나무라서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눅이 들었거나 겁에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런 그렇지유. 그러나 말입니다, 꿩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헐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두 문제란 말입니다. 보호헐 건 보호허야 마땅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는 으레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헐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아시라구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D] 용모는 아무것도 꿀릴 게 없다는 투로 원기 있게 말했다. 그것은 술기운 덕도 아닌 것 같았다. 지은 죄 없이 고개 조이고 살아온 사람이 오랜만에 켜보는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싶었다.

판사가 고개를 갸웃하고 나서 용모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꿩은 잡아도 무방하다, 해조를 퇴치했다— 이겁니까?"

"도낏자루 감으로 나무를 찍을 때는 쥐고 있는 도낏자루를 기준해서 찍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입니다, 물런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오?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등쌀에 야생 동물이 안 남아나니까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니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겄는디유,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겄습니다마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오?"

"예, 그러믄유. 여기는 바깥허구 달러서 여러 가지 것을 보호허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 동물— 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허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옶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 나는 용모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은 부드러우나 추운 겨울에 얼면 굳어져 부러진다던, 어디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판사가 기록집을 젖혀놓으며 판결했다.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전혀 안 보여…… 법정에 출두하는데 술에 취해 가지고 와서 횡설수설하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본보기를 삼아야 해요. 벌금 2만 원—"

– 이문구, 「관촌수필」 –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순만은 성문이 장에 가는 이유를 용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② 용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성문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③ 오수길은 고학성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성문의 말을 통해 알게 된다.
④ 고학성은 아들을 장에 보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을 사 오도록 한다.
⑤ 성문은 조순만의 말을 듣고 거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게 된다.

2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용모가 농민으로서의 지난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된 소재이다.
②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용모의 이기적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다.
③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용모의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④ 용모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 주는 사건의 원인이 되는 소재이다.
⑤ 흥정의 상대를 찾으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24.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 : '여겨보니'와 '성문이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B] :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의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 : '판사는'과 '용모는'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보면,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D] : '아닌 것 같았다'와 '믿어야 될 성싶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발화에 담긴 의미를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E] : '지켜보다가'와 '떠올랐다'를 보면, 작품 속의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하며 떠오른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다음은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의 신문 기사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일보 1974년 △월 △일

조수 보호는 됐지만 농가 보호는 어디로

지난 1972년부터 조수 보호 정책에 따라 야생 동물의 전면적인 수렵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 이후 야생 동물 보호라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이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렵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농가 1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3만 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데, □□군의 경우 농작물 생산량이 계획보다 3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농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도 쏟아지고 있어, 야생 동물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① 조수 보호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니, 용모는 올무에 잡힌 꿩을 파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② 야생 동물의 자율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판사가 용모에게 자연 보호가 당면 과제임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군.
③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용모가 꿩도 농작물을 해치는 해조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군.
④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자신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반발하는 용모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겠군.
⑤ 농가 1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3만 원을 웃돌았다는 기사 내용을 보니, 판사가 용모에게 내린 2만 원의 벌금형이 용모의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었겠군.

[26~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십 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도라오니
산천 의구하되 인사(人事)는 달라졌구나
아마도 세간의 존멸을 못내 슬허 하노라 <제1수>

산화(山花)는 믈의 픠고 물새는 산의 운다
일신이 한가하야 **산수간**의 누어시니
세상의 **어즈러은 긔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제4수>

거믄고 빗기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청풍은 건듯 블고 명월도 도라온다
하믈며 유신(有信)한 갈매기는 오명 가명 하나니 <제5수>

거믄고 흥진(興盡)커던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도화 뜬 말근 믈 뛰노나니 고기로다
아이야 밋기 다지 마라 취적(取適)*이나 하오리라 <제7수>

– 신교, 「귀산음(歸山吟)」 –

* 취적 : 낚시질의 참뜻이 세상 생각을 잊고자 하는 데 있음.

(나)

백수(白首)에 산수 구경 늦은 줄 알지마는
평생 품은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여겨 ┐
병자년 봄에 봄옷을 새로 입고 [A]
죽장망혜(竹杖芒鞋)로 노계 깊은 골에 마침내 찾아오니 ┘
제일강산(第一江山)이 **임자 없이** 버려져 있네
예로부터 은사 처사 많이도 있지마는
천지가 감췄다가 나를 주려 남겼도다
(중략)
하물며 태평 시대에 버려진 몸이 할 일이 아주 없어
세간명리(世間名利)는 **뜬구름** 본 듯하고
아무런 욕심 없이 탈속의 마음만 품고서 ┐
이내 생애를 산수에 깃들인 채 [B]
길고 긴 봄날에 낚싯대 비껴 쥐고 ┐
칡두건 베옷으로 낚시터 건너오니 [C]
산의 비 잠깐 개고 햇볕이 쬐는데
맑은 바람 더디 오니 고요한 수면이 더욱 밝다 ┐
검은 돌이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세겠노라
고기도 낯이 익어 놀랄 줄 모르니 [D]
차마 어찌 낚겠는가
낚시 놓고 배회하며 물결을 굽어보니 ┘
운영천광(雲影天光)*은 어리어 잠겼는데
어약우연(魚躍于淵)*을 구름 위에서 보는구나
ⓐ 하 문득 놀라 살펴보니 위아래가 뚜렷하다
한 줄기 동풍에 어찌하여 어부 피리 높이 불어오는가
적적한 강가에 반갑게도 들리는구나
지팡이 짚고 바람 쐬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E]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든 ┘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 박인로, 「노계가(蘆溪歌)」 –

* 운영천광 :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
* 어약우연 : 물고기가 연못에서 뜀.

(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런수런 신록(新綠)의 문이 열리리라. 그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움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둣빛 물감을 풀어 내고 싶다. 가려 둔 속 뜰을 꽃처럼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귀는 항시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다.

– 법정, 「거꾸로 보기」 –

2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과거의 삶을 후회하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옛 성현의 말을 반복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제1수>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② <제4수>에서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다.
③ <제5수>에서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며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다.
④ <제7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동질감을 표현한다.
⑤ <제7수>에서는 <제5수>에 언급된 대상을 다시 언급하며 화자의 행위가 변화했음을 드러낸다.

28.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의 '평생 품은 뜻'이 의미하는 바를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A]의 '봄옷'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C]의 '베옷'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대조되고 있다.
③ [B]의 '산수에 깃들인 채' 사는 삶의 양상을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B]의 '욕심 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D]의 '고기 수'를 셀 정도로 맑은 자연의 이미지가 [E]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형상화한 사대부들의 시가를 일컬어 '강호시가'라고 한다. 강호시가에서의 자연은 화자에게 익숙한 곳일 수도,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은 화자가 오랜 세월을 거쳐 찾아온 공간으로서,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번잡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한 삶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① (가)의 자연은 화자가 '고향'의 '산천'이 '의구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에게 익숙한 곳으로 볼 수 있군.
② (나)의 자연은 '임자 없이' 감춰져 있던 곳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으로 볼 수 있군.
③ (가)의 '십 년', (나)의 '백수'는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화자가 노력한 세월로 볼 수 있군.
④ (가)의 '어즈러은 긔별'과 (나)의 '뜬구름'에서 화자가 속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⑤ (가)의 '산수간'에 누워 있는 모습과 (나)의 '누대의 맑은 경치'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화자가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30.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하늘의 모습을 물에서 보게 된 것에 대한, ⓑ는 산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② ⓐ는 하늘과 물의 변함없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는 선명하게 드러난 산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반응이다.
③ ⓐ는 하늘이 물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에 대한, ⓑ는 산이 주변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④ ⓐ는 하늘과 맞닿은 물이 분리되어 보이는 것에 대한, ⓑ는 산과 주변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⑤ ⓐ는 하늘과 물이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한, ⓑ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 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구속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한다. 지식은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며, 지식을 토대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이름 붙인다. 따라서 지식을 완전히 멈출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미지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①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은 지식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② '사람'과 '사물'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미지의 것을 경험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겠군.
③ 어떤 대상에 대해 '아무개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⑤ '시들한 관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로 볼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짓달에도 날씨가 며칠 푸근하면
철없는 개나리는 **노란 얼굴** 내민다
봄이 오면 꽃샘추위 아랑곳없이
진달래는 곳곳에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의 마음을
가냘프다고 / 억누를 수 있느냐
어두운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의 힘을
보이지 않는다고 / 업신여길 수 있느냐
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꿈을
드높은 가지 끝에 품은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힘차게 위로 솟아오르고
ⓐ 조용히 아래로 깊어지며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를
그러나 행여 잊지 말기를
ⓑ 아무리 높다란 나뭇가지 끝에서
저 들판 너머를 볼 수 있어도
뿌리는 언제나 땅속에 있고 / 지하수가 수액이 되어
남모르게 줄기 속을 흐르지 않으면
바람결에 멀리 향냄새 풍기는
아카시아도 라일락도 / 절대로 피어날 수 없음을

– 김광규,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

(나)

ⓒ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굽다」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②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④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를 드러내어 젊은이들이 힘겨운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 : 극단적 상황임을 강조하여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 :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대인의 노력을 그려내고 있다.
④ ⓓ :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 현대인을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 :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굴에 빗대어 각자의 일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며 이상적 세계를 향해 가는 나무의 생명력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에 있음을 보여 주며, 젊은이들도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나)는 일상에 지쳐 살아가는 삶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현대인의 생명력의 근원이 인간 바깥의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기원한다는 사유를 드러낸다.

① (가)의 '노란 얼굴'은 겨울임에도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나)의 '무표정한 저 얼굴'은 화자가 지하철역에서 만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의 '보이지 않는'은 나무가 꽃을 피우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나)의 '볼 수 없는'은 현대인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하늘'은 나무가 희망을 품고 향해 가는 곳임을, (나)의 '땅속'은 현대인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곳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가)의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는 젊은이들이 나무처럼 꿈을 피워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의 '일으켜 세우는'은 현대인이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의 '뿌리'는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는 힘의 근원임을, (나)의 '불가마'는 현대인이 일상을 극복하는 힘의 근원임을 보여 주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